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3, 2015. 8, pp. 125-150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이 미 선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의 결혼 유형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쌍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였다. 5쌍의 사례별 분석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주제로 묶어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5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 주제별로 나열하면 '결국 결혼상대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겨나감', '자녀양육을 걱정하며 도움 받거나 노력함', '어려움과 장벽들 넘어서기', '가족관계의 회복과 도전'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의 의미는 "익숙한 농문화권에서 부부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음에서 부모가 되면서 장애를 재인식하며 청인화를 원하지만, 그 문화권 내에서 더 노력하는 성숙의 발판으로서 장애를 경험하며 다시 머무르게 되는 삶" 이라는 점이었다. 이처럼 문화의 유지의 추구와 그 연속성 상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은 농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청각장애인의 결혼, 농(Deaf)문화, 질적 사례연구, 청각장애인 가족

1. 서론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서 있는 논자들에게 결혼은 주로 남성과 여성에 의한 부부 형성에 아우른 자녀 출산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적 입장(revisionist view)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결혼

* 이 논문은 이미선(2015)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사랑하는 개인과 개인의 로맨틱한 결합을 의미한다. 비록 이 두 관점이 결혼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같은 논쟁을 야기하는 주요한 차이라 할지라도, 양자 모두 결혼이라는 행위에는 개인과 개인을 잇는 내밀한 친밀성의 요소가 있으며, 그와 같은 요소가 결혼생활을 이루는데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본 연구는 의사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융합과 성장, 혹은 갈등과 실망의 양상이 청각장애인 부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을 그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다른 의사소통 경험을 영위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결혼생활, 의사소통 그리고 삶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내에서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발표된 부부관련 논문 중 약 50%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정연 · 유영주, 1990; 정현숙, 2001)은 개인과 사회에 공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있어 상호 친밀함과 관련된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결혼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이뤄져 온 편향적 측면도 있었으며, 부부를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관계적 변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들이 시도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나 이뤄지고 있다(노충래 외, 2010). 이와 같은 흐름은 부부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공동의 행위라는 결혼생활의 특성을 사상한 채로 한 쪽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관계적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보다 포괄적인 연구 결과의 도출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결혼을 다룬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의 결혼은 소수자로서 차별 받아온 장애인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결혼률은 장애인의 정상화 또는 자립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경우 장애인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화되고 간접적인 차별이 없어졌다면 비장애인과 비슷한 결혼률을 보일 것이다(오혜경, 2011). 물론 이와 같은 측면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의 부부관계 안정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기본적인 삶의 발달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은(권영은, 2005; 박김영희, 2007; 이효선, 2011; 차선자, 2007; 박명숙, 201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포괄적인 측면의 고려를 요청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도 결혼은 그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름의 특수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2)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유배우 비율이 60.7%였고, 사별이나 별거 혹은 이혼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경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는 96.2%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 가운데서 장애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44.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청각장애는 평균 24.7

세의 결혼 연령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러 장애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기가 빠른 편이었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까지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은 기본적 수준에서 결혼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보다 옹호되고 있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봄에 있어 결혼 이후 부부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농아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강주수, 2004)와 농아인 부부의 의사소통형식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정점희, 2011) 정도만이 있어왔다. 청각장애인과 그들 가족의 삶을 다룬 연구들은 청각장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박정란, 2000; 박병은, 2002; 이미혜; 2004; 허명자, 2004; 소은숙, 2004; 김대규, 2009; 이미선, 2010). 이에 비해서 청각장애인 부부의 삶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한쪽 배우자가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연구(Reiter, 1987; Jones, 1987; Hétu et al., 1993; Piercy and Piercy, 2002)가 대개를 이뤄왔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부부의 삶을 다룬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를 세부적인 주제로 대별한다면 크게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로서 청각장애가 부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Oyer and Paolucci, 1970; Meadow-Orlans, 1985; Jones, 1987; Reiter, 1987; Hétu et al., 1993; Getty and Hétu, 1994; Getty, 1995; Piercy and Piercy, 2002에서 재인용)와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Piercy and Piercy, 2002)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경험은 부부가 변화와 지속을 위해 당면하는 부부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부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결혼경험은 심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로 구성되며 부부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그와 같은 경험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결혼경험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를 탐구하고, 과정을 깊이 파악하거나,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할 때는 질적연구 접근이 적합하다(권지성 외, 2010).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을 드러내는데 부부를 쌍으로 하여 한 케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은 개인보다는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기 성장한 두 성인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삶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생애사를 공유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부관계를 통해 두 사람은 삶에 함께 적응하고 협력하는 것이기에 부부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를 한 쌍으로 분석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부부로써의 경험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과 그 의미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의 결혼과 그들의 가족의 욕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청각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2. 문헌검토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장애를 비장애와 구분되는 어떤 상태로 다루면서 다소 추상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많은 계량적 연구에서 장애관련 변수를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같은 변수로서 포착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부부관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다양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청각장애인 가족을 본격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들은 청각장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서 청각장애인의 결혼 및 부부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많은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다룬 사례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부부의 삶을 다룬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크게 대별한다면 주로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로서 청각장애가 부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청각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기에 속하는 연구들도 청각장애의 특성상 부부간의 의사소통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갈등은 결혼 이후에 노령이나 사고 혹은 질환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청력 손실을 경험한 부부에게서 현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Jones(1987)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분석에 포함된 97명의 부부가 결혼 이후 청력 손실을 경험한 배우자를 둔 97명의 연구참여자 가운데서 약80%가 의사소통이 이전보다 내밀한 성격이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Reiter(1987)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청각장애 배우자를 둔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성적인 요소를 포함한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의 연구는 이와 같은 경험이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장애로 인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수준이 떨어질수록 더욱 증폭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Hétu 외(1993)의 연구는 배우자가 청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을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청력 손실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반적이면서 사회적인 규칙의 파기 과정 -예를 들어, 반복해서 말하기, 큰 소리로 말하기, 가족 구성원을 불쾌하게 만드는 높은 TV볼륨 등- 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에너지의 고갈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상호작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과정들을 다뤘다.

Getty(1995; Piercy and Piercy, 2002에서 재인용)는 청각장애가 부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청각장애를 남편이 경험하는 경우는 아내는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지자,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인 아내가 청각장애를 경험하는 경우에 남편의 태도는 많은 경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와 아울러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청각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은 특히 한쪽이 건청 배우자인 경우 더욱 부정적인 양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adow-Orlans(1985)는

배우자가 청각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건청 배우자의 의해 의사소통 및 지지의 철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찰했다. 유사한 연구로서 Oyer와 Paolucci(1970)는 청각장애 부부 사이에서의 스트레스 감정 발생 역동을 보고했으며, Getty and Hétu(1994; Piercy and Piercy, 2002에서 재인용)의 연구는 청각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건청 배우자 양쪽에 의한 사적, 공적 사회적 활동의 위축과 거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Reiter(1987)의 연구는 청각장애를 경험하면서 부부의 성적인 친밀함이 감소하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관련 연구들은 청각장애가 부부의 관계 맺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특히 분석의 관심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장애의 정도, 장애의 시작과 진행, 건청 배우자의 존재여부, 성별 역할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의사소통, 지지와 돌봄, 성적 친밀감, 부부의 사회적 활동과 같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부 중 한 쪽 배우자가 결혼 이후 청력 손실을 경험한 경우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양쪽 다 청각장애를 경험하거나, 선천적 혹은 결혼 이전에 청각 손실을 경험한 배우자를 두 부부 등 다른 형태의 청각장애 부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기존 연구(Schein, 1989)에서 청각장애인이 많은 경우 같은 청각장애인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연구 대상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각장애 부부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여타의 장애유형과 달리 '기능 손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한 쪽만 경험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빈번히 결혼관계를 가진다는 점은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의사소통의 수월성에 더 큰 선호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들의 장애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역으로 해석하자면 이와 같은 의사소통에 대한 그들의 선호가 결혼생활 가운데서 소통의 부재와 같은 불화로 이어진다면 더 큰 실망감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결혼 후기에 청각장애를 경험하는 경우 부부관계의 위기가 더욱 커진다는 것은 청각장애 부부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런 경우 청각장애를 새로이 경험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에는 그동안의 의사소통 방식과는 너무나 낯선 상황이 가로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는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 일반의 경우를 아울러서 볼 때, Fink 외(1968)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생활을 포함한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장애를 남편이 경험하는가, 아내가 경험하는가, 혹은 양자가 경험하는가는 다른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가족 내 의사소통에 있어 아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 남편의 청각장애 경험은 하나의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내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남편은 의사소통을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 낯설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은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부부 양쪽이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의

극복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장애부부와 유사한 역할 구도가 형성되는지, 혹은 새로운 부부 역할이 정립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양쪽 모두 장애를 경험하는 부부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역동이 관찰된다면 부부간 의사소통의 강화를 위해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간에도 일반적인 형태의 역동이 반복된다면 문화적 맥락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맥락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도 부부의 내적인 삶에 어떻게 흡착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고 집합적 문화가 여전히 강하면서 관련 사회복지 수준이 서구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Lee와 Oh(2013)의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장애로 인한 직업 참여와 경제적 문제, 가사노동의 효율적인 분담과 같은 보다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들이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지적된 의사소통이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어지는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슬로우 욕구이론의 위계적 측면을 강조한 Fink 외(1968)의 연구가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형성, 승인과 관련된 '상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 욕구, 신체적 안전과 같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 이후 청력손실로 부부 의사소통에서 내밀성의 하락 및 단절을 경험한 연구(Jones, 1987; Reiter, 1987), 배우자가 청력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갈등의 양상을 다룬 연구(Hétu et al., 1993)에서 상호작용이 점점 줄어듦을 발견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결혼 이후에 배우자의 청력 손실을 경험한 부부에게서 현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Getty, 1995; Piercy and Piercy, 2002에서 재인용)도 있었다. 이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이 건청이거나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청각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은 특히 한쪽이 건청 배우자인 경우 더욱 부정적 양상을 드러낸 연구(Meadow-Orlans, 1985; Oyer and Paolucci, 1970)와 청각장애와 건청 배우자 양쪽에 의한 사적, 공적 사회적 활동의 위축과 거부를 살펴본 연구(Getty and Hétu, 1994; Piercy and Piercy, 2002에서 재인용)가 있었다.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노화나 사고에 의해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Piercy and Piercy, 2002).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청각장애가 가져오는 의사소통 기능의 상실 그 자체로 인한 '물리적' 차원의 문제가 결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배우자 간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양상과 그것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들을 둘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주로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귀인(attribution) 과정에 분석적 초점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귀인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유추하는 인식적 과정을 의미한다(Crosbie-Burnett and Lewis, 1993). 귀인이론은 지금까지 부부생활의 문제와 부부문제의 개입 전략을 위한 연구에서 광범하게 활용된 개념이다(Piercy and Piercy, 2002). 특히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 부부의 경우 상호간의 행위

에 대해 어떤 인식적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결혼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서 청각장애를 경험하는 남편이 다른 부부와의 사교적인 만남에서 혼자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가 "그는 지금 활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저렇게 피곤하고 지루해 할 거면 왜 이 모임에 나왔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남편의 고립된 행위가 '어려움과 위축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피곤해함, 지루해함'의 결과로 귀인하고 있어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아내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청각장애 부부를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몇몇 연구들(Bradbury and Fincham, 1990; Fincham and Bradbury, 1987; Fletcher and Fincham, 1991 등)이 부정적인 귀인이 부부의 관계 만족도에 높은 수준의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Gottman과 Levenson(1999)의 연구는 만족도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은 결혼생활의 유지와 결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인지적 과정이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다양한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 청각장애부부의 삶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위에서 청각장애가 부부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상호작용의 축소 및 철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결핍 가능성은 부부간의 부정적인 귀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청각장애 부부들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이 청각장애 부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각장애인 부부의 삶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들인 왜 그들은 같은 장애를 지닌 배우자를 선호하는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선호와 청각장애인 부부로서의 삶이 장애 부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젠더 양상의 역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울러 청각장애인 부부들의 독특한 도전적 상황이 삶의 다양한 장면들에서 부부간 상호 인식의 귀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이라는 맥락 내에서의 해석에 초점을 두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에서 일차적 자료 출처가 되는 참여관찰과 수화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에서는 표본추출을 위한 적절성과 충분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흥식 외 역(2006)이 제안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첫째, 연구목적인 결혼경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로 5

년 이상 결혼을 유지한[1] 청각장애인 부부이어야 하며[2], 둘째,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증 청각장애 부부여야 한다. 셋째,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경우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5쌍의 부부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이들의 연령[3]은 남편이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였으며, 부인은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였고, 결혼기간은 5년에서 35년까지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9년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부터 대학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직업도 기술직부터 목사까지 다양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부부		연령(성별)	결혼기간(년)	학력	직업	자녀 수
A	가	50대 후반 (남)	35	중졸	농업	3
	나	50대 후반(여)		초퇴	농업	
B	다	50대 초반(남)	21	대졸	목사	2
	라	40대 중반 (여)		중졸	농통역사[4]	
C	마	30대 후반(남)	18	중퇴	생산직	2
	바	30대 후반(여)		고졸	주부	
D	사	40대 중반(남)	8	중졸	기술직	3
	아	30대 후반(여)		고졸	주부	
E	자	40대 후반(남)	15	대재	농통역사	2
	차	30대 중반 (여)		고졸	생산직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부부 공동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로 사례당 3회~4회, 40분~2시간의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

1) 결혼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결혼년수별 이혼율 통계에서 결혼 기간 5년 미만의 이혼율이 가장 높아(통계청, 2013), 결혼 초기의 힘든 적응 시기를 보낸 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이라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깊이 있고 다양한 전략을 진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유순 외, 2012).

2) 결혼생활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 후 3년을 가족생활주기에서 결혼초기로서 가장 복잡하고 적응이 힘든 시기로 보고, 결혼을 통해 서로 친밀과 안정을 찾는 데 3년 이상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을 참여자로 선정한 연구(유명이, 2004), 결혼한 지 4년 이상이며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기술지 연구(김민경, 2009),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및 교육에 따른 과정들을 공유하기에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최지영, 2009)도 있었다.

3) 연구참여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4)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라는 직업은 청각장애인이 수화와 한글을 구사하지 못하거나 구사하기 힘든 문맹농인(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계 통역의 역할, 청각장애인의 상담, 교육 등 체계적인 의사소통의 연결고리로서 촉진자를 의미한다. 2004년부터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인터뷰 장소도 연구참여자가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인터뷰 과정에서도 부부인터뷰의 경우, 참여자 모두가 본인의 집에서 인터뷰하기를 원하여 그들의 가정에서의 생활들을 자연스럽게 참여관찰 할 수 있었다. 개별인터뷰의 경우도 참여자의 집이나 직장, 카페에서 만나 참여자들이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 뿐만 아니라 가족(부모, 시부모와 자녀), 수화통역사와 인터뷰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신경식·서아양 역(2011)은 문서, 기록물, 심층면접, 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 수집해야 할 여섯 가지 정보 유형을 추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연애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 사진, 문자 대화내용 등을 보면서 부부의 소통방식과 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살필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항은 연구노트에 기재하면서 관찰일지로 활용하였다. 이는 자료의 다원화를 통해 청인과 다른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관계적 측면을 파악하기에 유용했으며,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사례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공통의 중심현상을 찾아내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1 참조〉. 즉, 각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내고, 모든 사례들을 분석한 뒤에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며 주제들을 발견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화한 파일을 느린 화면으로 0.4~0.5배속으로 재생하여 반복 시청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사례별 요약 기술을 작성하였다. 둘째, 화면을 보고, 녹화된 수화인터뷰를 해석하면서 필사했다. 해석된 필사본은 수화통역사에게 제대로 해석되었는지를 한 달반 동안 점검받았다. 셋째, 최종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과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나갔다. 각 사례는 해당 사례자체에 집중하여 부부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고, 부부인터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나 부부인터뷰의 내용을 보충한 개별인터뷰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찾아나갔다. 넷째, 사례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례 간 분석은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 전반에 나타나는 이슈들을 나열하고, 유사한 이슈들을 묶어서 주제로 전환하였다. 이때, ATLAS.ti 프로그램 사용으로 원자료의 의미요약과 구성요소를 사례별로 비교해나갔다. 의미단위 요약은 부부별로 한 사례당 264개~411개로 총 1,540개를 정리하였다. 한 사례당 3회 이상의 인터뷰 자료였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가면서 겹치는 내용의 의미단위이거나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은 제외시켰고, 288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하였다. 다음으로 각 주제 안에서 사례들의 공통 경험이나 공통 경험 내에서의 차이, 또는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3) 연구윤리와 엄격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 연구참여자를 위해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였다. 특히 연구과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면접과정에 집중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전 과정을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장애를 고려하여 녹화가 시작

되기 전 수화로 연구참여 동의에 대한 설명을 수화로 하고, 수화로 동의를 거치는 작업을 하였다. 우선, 연구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승인(IRB 승인번호 2014-07-002)을 받았다. 이에 연구참여자 선정은 물론 개인정보 및 동의절차와 비밀보장, 자료 보관 및 폐기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윤리적 준거틀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방법의 특성 상 연구기간 내내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자료수집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부부를 동시에 인터뷰하거나 개인적 인터뷰가 추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에서 철회하거나 응답하기 힘든 질문은 답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수화로 인터뷰를 해야 하므로 캠코더를 사용하여 녹화한 후, 녹취록으로 필사할 것임을 설명하고, 수화통역에 대한 해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화통역사가 원자료를 해석함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연구 동의의 경우에도 동의서 서면 작성 외, 녹화 시작과 동시에 연구목적 설명과 함께 연구동의를 수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녹화와 기록된 내용은 연구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연령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으며, 연구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 직업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익명 처리함으로써 익명성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글쓰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참여 작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자연스럽게 자료의 삼각화가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사례별 분석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중심으로 주제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별 분석에서 나타난 결혼경험을 한 쌍의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사례 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여 결혼생활 경험은 부부 공통의 이슈로 부부를 한 쌍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에 대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며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결혼생활 경험에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앞서 사례별 분석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분류하고, 원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을 아우르는 몇 가지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의 상위범주로 나타난 유목화 과정에 따른 하위범주는 주제별로 29가지로 구분된 288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결국 결혼상대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겨나감', '자녀양육을 걱정하며 도움 받거나 노력함', '어려움과 장벽들 넘어서기', '가족 관계의 회복과 도전'들이다. 이들 주제를 원자료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결국 결혼상대는 청각장애인

(1) 청인과 차원이 다른 차이와 넘을 수 없는 벽

연구참여자들은 청인들과 대화방식의 차이, 소통이 엇갈리거나 힘듦, 이해가 힘듦처럼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들리는 것을 매번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듣지 못함과 들을 수 있음의 문제는 생각과 내부세계, 정보력, 문화의 차이를 동반하고 있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고, 청인과 만나 음성언어로 소통함에 신뢰감을 쌓기 어렵고, 대화 내용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관계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는 신뢰감의 형성과 불안함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청인은 주로 청인과 만나기 때문에 농문화권 내에서 수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참여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수화를 잘하는 청인이더라도 제한적인 사고와 환경이 다르고, 소통문제로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원가족 안에서 청인과 살아오면서 다름의 차이를 느껴온 청각장애인들은 청인과의 차이를 어려서부터 경험해왔다. 청인과 연애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 소통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청인과 결혼한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과의 결혼을 추천하기도 했다. 청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청인과 결혼한 청각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성공경험이 있을 시, 청인 배우자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한계도 나타났다.

(2) 같음의 매력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장애인과 결혼함으로서 동질감을 유지하고자 했다. ‘동병상련(同病相憐)’, ‘이심전심(以心傳心)’, ‘유유상종(類類相從)’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청각장애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가족 내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서 가족들과 홈싸인과 구화, 필담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소통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수화로 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부가 같은 언어로 소통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잘 맞고, 잘 통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인과 교제 경험 후 청각장애인과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참여자도 있었다. 비슷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이 빨랐다. 같은 입장이기에 세월이 흘러도 똑같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같음의 유지는 결혼 선호의 중요한 이슈였다.

2) 의사소통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겨나감

(1) 복병을 만남: 청각장애인끼리도 대화가 안 됨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과 결혼을 선호하는 것에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힌다. 청각장애인이면서 수화를 사용하는 부부면 대화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결과, 대화방식의 차

이나 수화를 구사하지 못하는 참여자도 있어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통은 답답함으로 이어지고, 통하지 않아서 힘듦의 시기가 있었다. 특히, 서로 대화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고, 완전한 소통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 걸린 부부도 있었다. 청각장애 부부로 살면서도 구화로도 소통이 안 될 때는 대화가 단절되었고, 서로 답답함은 지속되었다. 이렇게 답답함의 지속은 소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타인과의 연결에도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부부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한글과 수화를 가르치고, 교회에도 같이 나가면서 정보습득을 하게 했다. 수화 구사력이 비슷한 수준의 부부는 같은 대화 속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배우자는 대화가 엇갈린다고 표현하며 이해력이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 부부의 경우에는 연애시절 소통이 잘 되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수화만 선택해서 해석한 결과였다. 책임을 상대방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경향이 짙어서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수화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들도 서로 간 수화로 대화가 안 되거나, 이해의 문제로 해석이 안 되거나, 들으려 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화가 힘들기도 했다.

(2) 소통의 어려움과 단절

소통의 어려움은 원가족에서부터 출발했다. 수화를 하지 못하는 청인 가족들과 살아오면서 소통하기 위해 홈싸인을 사용하였고, 글을 배우면서부터 필담을 시작하였다. 듣고 쓰는 형태의 국어 습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럼에도 필담은 청인이 수화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가장 정확하면서도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담은 글을 모르는 부모님과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요인이기도 했다. 결혼 후, 배우자의 원가족과 소통하기는 더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배우자의 원가족들과 대화가 안 되거나 짧게 대화하였다. 글을 모르는 부모가 있을 시, 그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는 물론 사교육 현장에서도 들을 수 없음은 참여의 제한으로 이어졌다. 회의나 학원 교육은 눈으로 바라보고만 오는 것에 불과했다.

(3) 가족과의 대화에 홈싸인 중계 통역과 수화통역 도움을 받음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들과 수화로 대화하지 못했다. 각자 집에서만 통용되는 몇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홈싸인만 할 뿐이었다. 이러한 가정수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이준우·남기현, 2014),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가족 내 소통방식인 홈싸인의 빈도가 낮을수록 필담을 하거나 구화로 소통했다. 참여자들은 원가족들과 어려서부터 사용하던 수화를 답습했고, 가족들과는 가족 수화로 통했기 때문에 표준 수화로는 대화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원가족과는 수화로 소통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개인이 속해있던 가정의 소통법인 홈싸인은 그 가족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언어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주로 결혼 초에는 원가족의 수화통역을 부부 각자 하고 있었으며, 부부별 원가족과 만나는 빈도나 함께 사는 여부에 따라 홈싸인을 배워가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자신의 가족들과 배우자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는 자기 자신이었다. 구화나 홈싸인 등의 소통방법을 통해 소통방법이 다른 배우자의 가족들과 통하는 노

력을 서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다 중요한 정보나 회의, 갈등해소 등에는 수화통역사나 수화 가능한 종교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자녀는 수화를 모르는 자신의 부모들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했다. 그렇게 자녀가 성장하면서 조부모를 포함한 부모의 형제들과 대화할 때, 수화통역을 해주었다. 원가족들은 수화를 구사하지 못했으나, 부부와 자녀들은 수화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현하기 쉬운 나름의 방법으로 소통법을 터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4) 다른 방식의 소통

연구참여자 중 세 쌍의 부부는 장거리 연애를 했고, 데이트를 연결해 준 통신수단은 편지였다. 데이트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만나기로 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은 대충 정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언제 차 시간이 변동되고 누가 먼저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만나기로 한 지역의 터미널에서 만나야만 했다. 갑자기 날짜를 변동하거나 시간을 변동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당시에는 팩스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 내용에 따른 약속을 그대로 따라야했기 때문이다. 먼저 온 사람이 1~2시간을 기다리면 상대방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자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제 기간에 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삐삐가 나오면서 삐삐로 소통하거나, 삐삐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숫자로 암호화하여 만났다. 이후에 폴더폰이 나오면서 모든 참여자들은 부부간 대화는 문자로 소통했고, 영상전화가 보급되면서 영상전화로 소통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하면서 부부간 소통을 하였고, 자녀들과도 영상통화나 문자, SNS를 통해 소통했다. SNS를 통해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신수단의 발달은 가족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3) 자녀 양육을 걱정하며 도움 받거나 노력함

(1)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임신을 하면서 자신의 청각장애가 유전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특히,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교육과 직업현장에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됨으로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육과 직업선택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청인 아이 출산을 간절히 원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조차 보지 못했던 기회의 박탈감은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가 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또한 장애자녀를 출산하게 될지 모르는 부담감과 더불어 대부분의 아내들은 엄마로서 자녀에게 음성언어로 태교하지 못함을 미안해했다. 청인 엄마들처럼 태내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태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자녀를 돌보기 힘듦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 중에서도 밤에 자녀를 돌보는 일은 청각장애인 부부에게 가장 힘든 일로 드

러났다. 밤에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야 함에 지치고, 부부 중 잔존청력이 더 나은 남편에게 의지하기도 하면서 밤을 보냈다.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듣지 못함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했다. 자녀가 우는 것을 느끼기 위해 몸에 밀착시켜 안고 자거나 팔에 끈을 묶어서 잠을 자기도 했다. 여러 상황들에 지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청각장애인 부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어습득이 느렸고, 자연스레 수화를 배워갔지만 수화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훈계할 때, 수화로 설명하면 반응하지 않았고, 생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이 시기에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담겨 있었다. 특히 아내들은 어린 자녀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으나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 또 엄마의 목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지 못해 답답하거나 안타까워했다. 동화책 한 권도 읽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자장가도 불러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3) 자녀양육과 소통의 한계

자녀들이 아동기가 되면서 부모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다. 빠르면 7세경에, 보통은 초등학교 재학 중에 창피함을 느끼는 자녀를 발견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오지 말라는 자녀를 통해, 외출해서는 수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자녀를 통해 속상함과 미안함을 느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수화 공연을 하는 자녀가 오히려 수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점차 외부에서 수화통역을 해주거나 쇼핑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화로 소통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부모의 장애에 대해 자녀가 창피함을 느끼다가 이해하게 되었지만, 매번 수화통역을 부탁하게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간단한 학습지도도 해주지 못하고, 생각을 수화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도 느꼈다. 점차 자녀와 대화가 되어가는 시기였지만, 엇갈림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집에서는 말도 안하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의 문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기도 했다. 결국 학교에서 연락이 온 후에 문제 파악이 가능하기도 했다.

(4) 자녀 돌봄에 도움이 필요함

연구참여자들에게 '듣지 못함'은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가장 힘든 일이었다. 특히, 돌봄에 청인의 도움이 필요할 시기는 어린 자녀를 밤에 돌보는 일에서 들을 수 없는 문제였다. 밤에 아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깨워서 수유를 하게 하거나 출산 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다가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밤새 아이의 기침소리를 듣지 못해 집에 온 장모님이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 폐렴으로 입원시킨 경험이 있었다. 특히,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밤에 아이가 울면, 큰 아이가 부모를 깨웠다. 낮에도 동생의 소리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부모들은 큰 아이에게 고맙지만, 미안함도 느꼈다.

(5) 자녀를 양육하면서 청인 부모가 부러움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여자들은 청인이 부러웠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자녀와 같은 소통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태아기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전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부모로서 청인화 되기를 원함이 드러났다. 또한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이 좋지만, 건청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배우자가 청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애틋한 마음도 드러났다. 듣지 못함은 물론 학습지도나 독서지도 등 청각장애라는 장벽을 재인식하며 청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4) 어려움과 장벽들 넘어서기

(1) 경제적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전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추천한 운동을 포기하기도 했다. 결혼 초에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했다. 참여자들은 생활이 어려워 부모님과 함께 살기도 했으며, 아이 출산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다. 때론 수급권에 머물다가 맞벌이를 하면서 수급권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했다. 일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급여와 이직은 반복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자녀들의 양육에 힘썼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컸고, 경제적 부담감에 자녀들을 그만 낳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결혼 초, 자녀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 되었다.

(2) 정보 접근성이 낮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임신을 포함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가 없거나 소수만이 일정부분에 대한 지식 전달을 받은 게 전부였다. 특수학교에서 일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임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들을 수 있음은 듣기 싫은 정보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력을 가져오지만, 참여자들은 정보를 모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늦게 확인해야만 했다. 좋은 정보를 확인해서 청인에게 알려주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청인의 반응이 매번 반복되었다. 성과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생활 전반에서 정보가 늦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알지 못함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만들었다.

(3) 가족의 편견과 차별

결혼 전부터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내에서 차별을 받거나 편견으로 실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장애를 이유로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종교활동을 금지당한 사례도 있었고, 가족들이 장애를 창피하게 여겨서 혼자 많이 울고, 좌절하기도 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은

배워도 희망이 없다며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기도 했으며, 한 참여자의 경우, 어려서부터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으셔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어머니가 청인화 하려는 노력으로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기도 했고, 완전한 청각장애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특수학교 입학을 반대했다. 이어 청각장애인과의 결혼도 반대하며, 청인과 결혼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중에는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같이 살았던 친척들의 무시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기도 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에게 무시받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스스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거나 자녀 위탁을 고려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4) 불편한 시선과 무시당함

연구참여자들은 생활 전반에서 수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불편한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특히 마트나 수영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화할 때마다 청인들의 시선이 수화로 집중됨에 불편함을 느꼈다. 취업 현장에서도 한 명의 청각장애인이 일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장이나 주변의 청인들은 전체 청각장애인의 일로 확대 해석하여 청각장애인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전체를 일반화시키고 있었다. E부부는 함께 근무했던 한 청각장애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같은 대상처럼 여겨 직장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가서도 어떤 청각장애인의 예를 들면서 취업이 어렵겠다고 설명받았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 전체를 일반화하며 일자리 선택과 기회를 더 축소시키는 편견들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다.

5) 관계의 회복과 도전

(1) 가족과의 갈등

참여자들 중에는 아버지가 무서워 원가족과의 생활에서 도피하고자 결혼을 서두르기도 했고,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농아인들의 형제애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원가족들과의 사이에서도 소통방식의 차이로 이해하는 부분이 힘들었다. 결혼 후에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 갈등이 심하기도 했다. 때때로 외출을 감시받기도 했고,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있었다.

(2) 배우자와의 갈등과 노력함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지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결혼초 갈등이 심해 많은 위기를 극복한 후, 더 단단해져서 현재는 매우 평안한 상태로 평가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들, 자녀양육방식 등에서 서로의 차이로 갈등을 느꼈다. 간섭하거나 재촉하면서, 독선적이거나 강박적인 성격에 대응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했고,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부부싸움

이나 갈등, 스트레스를 풀 때, 남편과 아내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남편들은 스스로 화를 풀거나, 신앙심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다. 주로 혼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풀어 놓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 아내들은 청각장애 친구나 선배들에게 갈등상황을 다 쏟아 내거나 대화하면서 풀어갔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인 아내들은 속상하거나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와 상의하지만 소통법이 다름의 문제, 결혼할 때 청인과 결혼하라고 반대했던 경험으로 친정 어머니와는 마음을 나눌 수 없었다.

(3) 부부의 성생활

연구참여자들은 성지식에 대해서는 학교 재학 중에 배우거나 데이트를 하면서 알아가기도 했고, 친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알아가기도 했다. 두 쌍의 부부는 교제하면서 임신을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큰 아이 출산 후, 결혼식을 했다. 성관계를 할 때, 수화로 대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 불을 켜두거나 핸드폰이나 TV화면을 켜 두었다. 어려서 부모님의 성관계 장면을 본 적이 있어서 자녀가 성장하면서부터는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에는 밤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기도 했다.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더 신경 쓰였기 때문이고, 어려서 봤던 부모님의 성관계 장면에 대한 충격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남편들은 건강한 성생활은 남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점차 아내들은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지만, 귀찮더라도 남편의 요구를 받아주기도 했다.

(4) 남편과 아내의 시소가 균형을 맞춰감

부부의 지식수준은 시소에 비유할 수 있었다. 시소는 균형점이 가운데에 맞추어져 양쪽 끝에 사람이 타고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지레의 원리를 활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시소는 지식과 지혜와 수화의 구사 수준이 높았던 남편의 무게 중심으로 기울고 있었다. 두 부부의 경우, 학력은 아내가 높았으나, 남편이 아내를 주로 삶의 지혜나 지식들로 가르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결혼 초 부부의 수화 구사능력을 포함한 지식수준은 무게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결혼 초 차이가 났던 경험수준과 차이가 서로 맞춰가면서 살기 좋은 수준이 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의 의미는 “익숙한 농문화권에서 부부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음에서 부모가 되면서 장애를 재인식하며 청인화를 원하지만, 그 문화권 내에서 더 노력하는 성숙의 발판으로서 장애를 경험하며 다시 머무르게 되는 삶” 이라는 점이었다.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이들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부부 양자는 물론, 수화를 사용하는 자녀들과 함께 농문화를 이루며 당당하게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부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도전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고자 분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원가족 안에서 살아오면서 초기 성장 과정에서는 수화로 소통하지 못했고, 가족이 속한 청인문화에 흡착되어 살아갔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청인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지만, 특수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농문화를 습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청각장애인은 같은 장애유형의 청각장애인을 배우자로 얻는 경우가 90%에 이른다는 결과(Schein, 1989)를 잘 설명해 준다. 요약하자면 청각장애인들의 농문화의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연속성의 추구가 그들 결혼의 형성과 유지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청각장애인과의 결혼은 수화로 소통이 가능하며 농문화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의사소통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상대의 존재를 전제하는 가장 복잡한 활동이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은 단지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반응, 그리고 행동을 내포하며 이야기되는 말뿐 아니라 문법, 그 말이 부여하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영목, 2000; Bradley, 2003; 송남영, 2013에서 재인용). 청각장애인은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면서 살아왔기에 농문화의 연속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청각장애인은 농문화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중요한 삶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항상성의 유지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고 익숙한 것만을 추구하는 도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청각장애인 부부는 결혼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면서도 결혼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가족들과 가족체계를 이루며 가족 안에서 청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건청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깨달음의 법칙을 알아갔다. 청각장애인 부부는 소통과 농문화권의 항상성을 유지해가면서도, 한정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협소한 이해와 사고 등을 깨고 인생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획득해왔다.

이처럼 문화의 유지의 추구와 그 연속성 상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은 농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성장의 모습들은 그들의 장애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각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연구참여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도 부담감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배우자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수화를 당연히 완벽하게 소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실상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결혼 초기에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대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았고, 수화를 못하는 배우자에게 수화를 가르치면서 부부간 원활한 소통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원가족과 소통이 완전하게 단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 의사소통의 문제는 어느 특정기간에 극복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원가족 내에서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맞으면서, 배우자의 가족들과 연합하여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원가족들과 수화로 의사 전달한 경험이 적었다. 이들에게 구화와 필담은 주요한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과 배우자 사이에서 통역을 담당하거나 자신이 사용했던 홈싸인을 배우자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가족회의나 중요한 내용들은 수화통역사나 종교인을 요청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이 통역해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경우 원가족들은 수화를 배우지 않았고, 홈싸

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청각장애라는 특수성은 앞서 언급한 결혼 과정을 통한 성장 과정의 문화적 토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중요한 항시적인 제약이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걱정하는 마음은 청인과 같지만, 이들은 '듣지 못함'과 '말하지 못함'의 장벽에 청인의 양육방식이 부럽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자괴감이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서 청인으로부터의 도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소리와 음성언어를 통해 이들 부부의 자녀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형태가 많았다. 자녀를 임신하면서부터 청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모로서의 위축감을 가져왔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부부'로서는 청각장애가 장애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에서 '부모'가 되면서 청각장애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애는 결혼에서 소통의 장벽을 넘어 노력해가며 이겨내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듣고 싶지만 노력해도 들을 수 없는, 말해주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장애의 대체불가능적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특히 청각장애 부모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주류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좋은 부모'가 됨으로써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를 수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인의 양육방식이 부럽고, 청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자녀양육을 통해 드러난 것은 부모로서 정상화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태교에서부터 돌봄, 보육, 지도의 전과정에서 건청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청인화를 소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장애를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청각장애부모의 자녀양육경험 연구(박정란, 2000; 박병은, 2002; 허명자, 2004; 소은숙, 2004; 이미선, 2010)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청각장애 부모로서 느끼는 청인화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는 자신의 장애를 부모가 되면서 재인식하게 됨으로써 더 노력하는 성숙의 발판으로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를 안고 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은 이들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앞서 논의한 내용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장애 상황은 스스로 극복의 의지를 키우고 결혼생활을 통한 성숙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부모로서의 그들의 삶에서는 한편 스스로의 삶에 대한 위축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 대한 도움의 방식은 개인화된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로서 그들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이 특히 필요한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여성의 경우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다. 여기에는 정보력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편견과 차별, 불편한 시선들이 포함되었다. 여성청각장애인의 부모는 많은 경우 그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딸이 청인남편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라는 희망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의 차별이라기 보다는 청인부모가 자신이 딸이 청인에게 의존하여 편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라도, 자녀를 청각장애인이면서 독립된 주체로 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성 청각장애인의 이와 같은 상황은 자신을 삶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결혼생활이 수동적 의존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삶 속에서 여성의 상황도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여성에게 있어 내면적 독립에 있어 청각장애가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갈등과 회복의 경험을 반복했으며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대처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의 지식수준을 아내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아내들은 수화로 소통이 가능한 남편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배워갔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부부의 수준이 비슷해지는 양상이 보였다. 여성 청각장애인이 경험하는 관계형성과 소통의 제약 상황은, 결혼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의사소통의 대상으로서 남편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지식수준을 따라가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비대칭성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편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청각장애인 부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적 흐름의 문제가 어떤 한계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청각장애인 내에서도 청인이 더 우월할 것이라는 가족의 신화(Myth)에 대한 사고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내가 청인이었으면 청인 아내의 내조로 자신의 지식수준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청인 아내를 둔 청각장애 남성의 경우 지금의 직업적 성취도 청인아내의 내조 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현재의 청각장애인 아내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남편이 청인배우자에 대해 지식수준이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논의한 비대칭적 흐름의 양상과 관련지어 아내의 지적 수준을 따라가지 않으려하면서도 막상 청각장애인인 아내를 낮춰 보려는 이와 같은 태도는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중적인 태도를 일부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청인이 우월할 것으로 생각하는 가족신화가 청각장애인 부부의 외부 제약으로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형성된 제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여성 장애인의 경우 여성과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중의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청인에 대한 가족의 신화가 내부적으로 여성에게 특히 전가되어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실천적 함의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청각장애가 그들 삶에 있어서 도전적 상황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숙을 향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부부생활을 포함한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가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양육자로서의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개입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unst와 Trivette(1994)는 가족강화모델에 근거하여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구성원의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자원의 연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최민숙, 2007). 아울러 이

들이 양육의 부담감과 같은 심리적 무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청각장애부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과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과 함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영(2005)은 부부간의 정서, 생각, 욕구를 분명하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것을 통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을 이문화 가족의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갈등영역에 대해 다른 부부들과 함께 의사소통하여 갈등해결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청각장애인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응용해도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부간 갈등 양상에서 소통을 단절하고 자신만의 사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너른 소통의 장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

가족 차원에서의 실천적 함의로는 수화를 사용하고 농문화 가운데서 살아온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과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의 형성은 부부간 동질감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결합을 통한 가족관계의 확대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결혼이 항상성의 유지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은 항상성의 안정적 유지와 그와 같은 안정성 내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거나, 혹은 의사소통의 실패로 인한 새로운 갈등의 발생과 기대했던 항상성의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항시적 의사소통의 제약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수화를 좀 더 원활하게 배울 수 있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면서, 아울러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 같은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설사 수화를 배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어생활의 차이에 따라 사고와 표현 방식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수학교의 교사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전문가, 지역사회 주민 등이 장애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인 안에서도 소수자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많은 부분에서 청각장애인 부부에게 성공적인 결혼생활은 관용적 자세를 기르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장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청각장애의 또 한 측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권리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할 때 이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관계의 제한요소인지에 관한 민감성은 물론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김미옥·이미선, 2013).

한편으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권리의 옹호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청각장애인 부부와 그들의 가족은 단순히 보살핌이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사회 전반에서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현장은 물론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청각장

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청각장애인 가족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주수, 2004,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서 본 부부 농아인의 가족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지성・안재진・변미희・최운선, 2010,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09-233.

김대규, 2009,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인 자녀 양육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하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19-38.

김미옥・이미선, 2013,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2): 155-178.

김민경, 2009, “국제결혼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김유순・오영숙・안현화, 2012,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어려움과 적응전략”,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349-378.

노충래・강현주・최민지, 2010,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12): 105-134.

박명숙, 2013,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0: 25-42.

박병은, 2002, “학령 전 건청자녀를 둔 청각장애부모의 양육욕구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란, 2000,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송남영, 2013, “중증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사례연구: 전략의 맥락과 내용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은숙, 2004, “청각장애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양육 부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경식・서아양 역, 2011, 『사례연구방법』, Yin, R.,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4th ed.). 서울: 한경사.

오혜경, 2011,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4: 51-68.

유명이, 2004, “정신장애인의 결혼 유지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선, 2010, “청각장애어머니의 건청자녀 양육경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민영, 2005,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혜, 2004, “농아인 가족의 의사소통과 자녀역할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연・유영주, 1990, “가족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14.

이준우・남기현, 2014, 『한국 수어학 개론』, 나남출판.

정점희, 2011, “농아인부부의 의사소통 형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5(11): 89-104.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6,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8, Quali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최민숙, 2007,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가족참여와 지원』, 서울: 학지사.

최지영, 2009,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통계청, 2013, “혼인 이혼 통계보도자료”, http://www.kostat.go.kr.

허명자, 2004, “청각장애부모의 양육부담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 석사학위논문.

Bradbury, T. N., and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Crosbie-Burnett, M., and Lewis, E. A., 1993, “Theoretical contributions from social and cognitive-behavioral psychology”, 531-557, in *Sourcebook Of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edited by Boss, P. G.,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and Steinmetz, S. K., New York: Plenum.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87, “The impact of attributions in marriag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10-517.

Fletcher, G. J., and Fincham, F. D., 1991, “Attribu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7-35, in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edited by Fletcher, G. J., and Fincham F. 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Fink, S. L., Skipper Jr., J. K., and Hallenbeck, P. N., 1968, “Physical disability and problem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1): 64-73.

Getty, L., and Hetu, R., 1994, ”The role of the spouse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July, 3-8, XXII International Congress of Audiology, Halifax, N.S., Canada.

Gottman, J. M., and Levenson, R. W., 1999, “What predicts change in marital interaction over time? A study of alternative models”, *Family Process*, 38(2): 143-158.

Hétu, R., Jones, L., and Getty, L., 1993, “The impact of acquired hearing impairment on intimate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ology*, 32(6): 363-380.

Jones, L., 1987, “Living with hearing loss. Adjustment to acquired hearing los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Bristol: Centre for Deaf Studies, University of Bristol*, 126-139.

Lee othelia, E-K., and Oh, H., 2013, “Marital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3(4): 215-224.

Meadow-Orlans, K. P., 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hearing loss in adulthood A literature review”, 35-58, in *Adjustment to Adult Hearing Loss*, edited by Orlans, H., San Diego, CA: College-Hill.

Oyer, E. J., and Paolucci, B., 1970, “Homemakers’ hearing losses and family integr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2(4): 257-262.

Piercy, S. K., and Piercy, F. P., 2002, “Couple dynamics and attributions when one partner has an acquired hearing loss: implications for couple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8(3): 315-326.
Reiter, R. S., 1987, "Romance, sexuality, and hearing loss", *ASHA*, 29(12): 29-30.
Schein, J., 1989, *At Home among Stranger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Deaf Marriage Experience

Lee, Mise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l the deaf marriage experienc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qualitative case research approach was used to analyze the couple. This researcher following same issues from 5 couples case study analysis. This researcher set 5 titles and analyze from the 5 main issues about the deaf couple's experience as time goes by. The titles are 'finally the marriage spouses both deaf', 'to overcome communications difficulties', 'worried about raising children and get some help from other people and try something', 'try to get over the difficulties and hardships', 'recovering family relationship and challenge.' Through this study, understanding the deaf couples desire in having a family and live a normal life after becoming parents is "in a family deaf culture" wherein they aspire to become more mature and experienced deaf persons.

But the meaning of maintaining constancy was not just keeping their situation by taking familiar things hence there were no challenges. Keeping the constancy, maintaining a family since marriage, delivering and raising their children, make them realize some laws of life. They correspond well and break the narrow limited cultural way of thinking and recognized a broader sense of understanding while keeping constancy. Their life that is keeping their culture and experiencing matured life will be a good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eaf culture.

Key words: deaf marriage, deaf culture, qualitative case study, the family member of deaf

〔논문 접수일 : 15. 04. 13, 심사일 : 15. 05. 29, 게재 확정일 : 15. 06. 29〕

〈부록-1〉 범주화 과정에서 상위범주 주요구성 요소

예시) 원자료에서 1,500여개 의미단위 요약→아래의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단위 요약 107개 추출→하위범주 47개 도출

상위범주		하위범주 (47)
결국 결혼상대는 청각장애인	청인과 차원이 다른 차이(16)	대화방식의 차이 / 생각의 차이
		내부세계의 차이 / 정보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 / 문화의 차이
		청인이 만나는 사람은 청인 / 청인은 통하지 않음
		청인은 불편한 느낌 있음
		청각장애인의 제한적인 환경들이 청인과 다름
		청인과 서로 이해가 힘듦
		소통이 엇갈리거나 힘듦
		청인이 들리는 것을 매번 설명하기 어려움
		상황에 대처능력이 다름
		청인과 소통문제로 좌절을 느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의 판단이 청인보다 느림
	넘을 수 없는 벽(14)	청인의 마음은 확인하기 어려움
		청인의 전화통화가 궁금함
		청인을 신뢰하기 어려움
		청인과 결혼은 이혼율 높음
		청인이 수화를 잘해도 평생살기 어려움
		수화가 후퇴될 가능성
		청인 배우자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석 가능함
		청인이 매일 수화로 설명함에 지루할 것임
		청인과 연애는 가능함
		청인은 우월하다고 생각함
		청인과 통할 때까지 오래 걸리고 힘듦
		청인과 결혼하면 가족 내에서도 소외됨
		청인 배우자에 대한 불안감
		청인 배우자 모임에 참석이 어려움
	같음의 매력(17)	동병상련(同病相憐) / 이심전심(以心傳心)
		유유상종(類類相從) / 비슷해서 편함
		청인보다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이 원활함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
		문제 해결이 빠름
		청각장애인과 잘 맞고 잘 통함
		후배들에게도 청각장애인과 결혼을 조언함
		청각장애인의 통신수단은 개방적임
		청각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음
		청각장애인은 생각의 한계가 있음
		듣지 못해서 서로 이해가 가능함
		청인과 교제 후 청각장애인이 낫다고 생각함
		같은 입장은 세월이 흘러도 똑같음
		청인과 결혼한 청각장애인들이 조언함
		서로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음